

#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 본격화

### 미래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올해 70억 지원... 17일 사업설명회 개최

지난 해 전북도가 연구개발특구 지역으로 선정된 가운데 2016년 전북연구개발 특구육성을 사업 지원이 본격화했다.

전북도는 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2016년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비 총 817억원 중 70억원 규모를 전북도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특구본부는 특구육성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는 17일 전북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북특구육성사업은 공공기술 발굴·이전(출자) 연계·기술창업(연구소기업 등)→기술사업화(제품화)→후

속성장(투자연계, 마케팅) 등 공공연구기술의 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은 ▲기술발굴 및 연계(13억원) ▲기술이전사업화(42억원) ▲창업기업 성장 촉진(6억원) ▲성장특화 지원(9억원) 등이다.

또한,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고 사업타당성 검토, 기술가치평가 등을 수시로 지원할 예정이다.

2016년도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세부지원 내용은 2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미래부 및 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북연구개발특구 박은일 본부장은 특구 육성방향에 대해 "2016년은 전북

연구개발특구 공공기술사업화의 원년으로서 지역과 현장중심의 협업기반 기술사업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우수한 공공기술의 발굴, 그 기술이 출자되어 만들어지는 연구소기업 설립, 그리고 고용창출 등 특구 내 기업들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전북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개발특구는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세부지원 내용은 2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미래부 및 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북연구개발특구 박은일 본부장은 특구 육성방향에 대해 "2016년은 전북

/정영수 기자



2016년 시·군 릴레이 민생탐방으로 1일 전주시를 방문한 송하진 도지사가 김승수 전주시장, 박현규 시장의장 도의회 강영수 환경복지위원장, 양용모 교육위원장, 국주영은 환경복지부위원장, 김중철, 송성환, 도의원 등과 함께 기삼체철포아의 우수 창업기업인 (주)트윈테크를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 송하진 도지사, 전주시 민생탐방 대화

### 김승수 전주시장과 트윈테크·수화통역센터 방문

송하진 도지사가 2016년 시·군 릴레이 민생탐방의 일정으로 전주시지역을 방문했다.

전북도는 1일 송 지사가 전주시의 가상체험분야 우수 창업기업인 (주)트윈테크(대표 봉혁, 47세)와 농아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전주 수화통역센터'를 찾아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탐방은 김승수 전주시장, 박현규 시장의장 도의회 강영수 환경복지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먼저 송 지사는 2008년 창업한 가상 체험 개발, 모션시스템, 회전상형기 장비개발기업인 (주)트윈테크(대표 봉혁, 47세)를 방문해 봉혁 대표와 임직

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송지사는 "트윈테크는 무인항공기와 차량, 로봇 장비 개발에 참여할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도의 기술력과 아이디어라면 전북의 게임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다"라고 말했다.

봉 대표는 "요즘 부상하는 산업이 VR(Virtual Reality)관련산업으로 삼성기어VR, 페이스북 오클러스가 대표적인데, 이러한 분야에 뚜렷한 선두주자가 없는 상황으로 향후 전라북도에서 이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 미래 성장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송지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술개발 투자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전주 수화 통역센터'를 방문해 "외롭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말로 마음의 소리를 듣는 분들이라고"하면서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어려운 분들의 수요를 제대로 읽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장애인을 위해 평생교육센터 2곳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1곳을 신설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 작년산 벼 보급종 잔량 소진때까지 개별신청 받아

### 새일미·황금누리·수광 등 14개 품종 959톤 대상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경일)이 2015년산 벼 보급종을 추가 공급 후 남은 잔량에 대해 1일부터 개별 농가로 부터 개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가능한 품종은 새일미(341톤)와 황금누리(183톤), 수광(69톤) 등 14개 품종(959톤)이다.

공급가격은 일반벼 1포대(20kg)기준 3만7,320원(소득하지 않은 종자는 3만5,480원)이며, 잡벼는 1포대(20kg) 3만8,610원(소득하지 않은 종자는 3만6,770원)이다.

개별신청은 품종별 잔량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며, 신청 후 종자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를 통해 농가에 공

급되고 택배비는 신청 농가부담이다.

전북지원 관계자는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해서도 벼 종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는 서둘러 신청해 올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민형 기자

## 도, 강소기업 위털소재·아이니·대일푸드와 투자 협약

### 익산시에 공장 증설·이전키로

전북도와 익산시가 1일 도내 기술선도형 강소기업인 3곳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주)위털소재와 (주)아이니가 익산에 제 2공장 신설을 위한 증설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주)대일푸드는 익산 제 4산업단지로의 이전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소재 정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주)위털소재는 익산시 제3산업단지 9,900㎡ 부지에 2018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해 3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아동용 의류 전문생산 기업인 (주)아이니는 익산시 금강동 2,873㎡ 부지에 30억원을 투자해 20여명의 고용을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무항생제 육류가공 전문업체인 (주)대일푸드는

익산시 제4산업단지 9,900㎡ 부지에 30억 원을 투자해 확장 이전함으로써 40여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주)위털소재는 ISO9001 및 ISO14001 인증을 비롯하여 13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 선도형 강소기업으로 이번 투자협약은 화장품 재료 분야에 신규 진출을 위한 공장 건설을 위해 체결했다.

(주)아이니는 국내·외 아동복 시장 개척에 매진한 결과 지난해 100만불 수출 탑을 수상한 우량 향토기업으로 올해 정부의 '우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에 선정돼 중국 선양 롯데 백화점에 단독 매장을 개장할 예정이다.

(주)대일푸드는 2008년 법인 설립 이후 위생적 관리와 안전성 확보로 단체급식 및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인지도 상승중이며, 수주 물량의 급격한 증가

로 확장 이전을 결정했다.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뿌리를 내리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관료, 인력, 중소기업운전자금 등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붉은 원숭이 힘찬 기운처럼 실질적이면서 실적을 쌓아가는 무실현의 정신으로 기업이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익산시장 권한대행 한운재 부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꾸준한 산업기반 확충과 기업 애로 해소로 '기업투자 매력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익산시에 투자를 확정한 기업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투자가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져 기업체와 익산시가 상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익산=장영원기자

## 도, 창업지원사업 운영기관 공모

### 창업-중견기업 동반성장·재직자 직무역량 강화 등 5개 분야

전북도는 1일 2016년도 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별 운영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창업기업의 지속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

이번에 공모 사업은 총 5억원을 투자해 분야별로 ▲창업기업·중견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5,000만원) ▲창업기업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1억원) ▲창업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5,000만원) ▲대기업 퇴직자 활용 지원사업(2억2,000만원) ▲창업기업 경영개선 컨설팅(8,000만원)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시행된다.

이번 공모 사업은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창업기업과 중견기업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

이번에 공모 사업은 총 5억원을 투자해 분야별로 ▲창업기업·중견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5,000만원) ▲창업기업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1억원) ▲창업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5,000만원) ▲대기업 퇴직자 활용 지원사업(2억2,000만원) ▲창업기업 경영개선 컨설팅(8,000만원)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시행된다.

이런 공모 사업은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창업기업과 중견기업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

이번에 공모 사업은 총 5억원을 투자해 분야별로 ▲창업기업·중견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5,000만원) ▲창업기업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1억원) ▲창업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5,000만원) ▲대기업 퇴직자 활용 지원사업(2억2,000만원) ▲창업기업 경영개선 컨설팅(8,000만원)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시행된다.

### 개별운영 규제-국민신문고 통합

정부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규제신문고'와 '국민신문고'를 통합하기로 했다. 부처 간 규제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의 모든 규제정보를 신속하게 조회·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 등 '정부 3.0'의 취지에 맞춰 규제정보 포털사이트(better.go.kr)를 개편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신문고 민원 속 규제건의가 '규제신문고'로 단일화돼 국민 누구나 일반 민원이나 규제 민원을 구별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게 됐다. 규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이성주기자

## 스피치·응변·면접·리더쉽·시낭송

-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택(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 소통과 감성의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 교수 • CEO 과정 담당 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 교수
- 한국응변인협회 전북 회장
- 전북최초 스피치과정 설치 강연자
-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쉽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케어니케이션', '나를 세운말, 말만 '스피치노하우' 등
- 방송: KBS 아침마당(3회), MBC 전라도사람들, JTV현장다시보기 등 방송출연



※ 과 목: ① 스피치기법과 리더쉽 ② 스피치최고지도사(고급)  
③ 주말반: 토요일(매주 1회수업) ④ 면접반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익산캠퍼스)
- 서남대학교 평생교육원(남원, 순창, 장수)
-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군산, 김제, 부안)
-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완주, 김제)
-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임실, 완주)
-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정읍, 고창)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